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안 번호	6306
----------	------

제출년월일 : 2022. 4. 1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구-광주시의 우호관계 증진과 상생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영호남의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등 대구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함

2. 제안근거 :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

3. 수여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소속 및 직위
이용섭	1951.8.11.	남	한국	광주광역시장

4. 수여배경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등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에 기여한 양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구와 광주의 우호관계 증진과 상생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국민대통합과 균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 주요공적을 요약하면,

(1) 달빛동맹 공동협력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선도

- ▶ 달빛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21.6.29.) : 동서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될 달빛고속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중앙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호소하여 영호남 각계각층의 일치된 협력을 주도함
 - 영호남 6개 시도지사의 대통령 건의 공동호소문 발표와 공동의견문 국토부 제출
 - 영호남 국회의원, 헌정 최초 긴급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대구-광주 연대 강화 : 지방분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동포럼 개최 등 민·관이 주도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양 도시 간 동맹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역량 강화
 - 지방분권 시범실시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개발 공동 연구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동 적극 참여 및 협력

(2) 재난상황 공동대응으로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

- ▶ '20년 3월,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연대 발표와 달빛의료지원단 대구 파견 등을 통해 범국가적 코로나19 대응 연대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 대구와의 우호관계를 견고히 하고 시민사회에 깊은 감동을 선사
- ▶ 협력사업 공동추진 등 이해가 맞닿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달빛동맹이 양 지역 간 정서적 연대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
 - 대구 환자들에게 음압 및 격리병실 지원(32명 완치)
 - 광주시의사회 및 자원봉사자 대구시 지원
 - 광주→대구 보건용 마스크 4만장 등 구호물품 지원

(3) 대구-광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로 달빛동맹 시민공감대 확산에 공헌

- ▶ 경제산업과 SOC 분야를 넘어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대구-광주 시민들의 상호 이해도와 친밀감 제고
 -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가를 통해 민주항쟁 정신 고취
 -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
 - 팔공산·무등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대구-광주 달빛투어 교류
 - 광주 228 버스 명명식 개최
 -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 프로젝트 추진

(4) 달빛동맹 2기 시대 출범으로 대구-광주 장기적 우호·협력 관계 형성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달빛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동맹 발전을 위한 협약식’(‘21.7.6. 광주역) 개최로 공동번영의 새로운 전환기 마련
 -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
 -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위원회 발족
 - 달빛동맹의 교류범위 확대를 위한 달빛동맹발전위원회 구성

5. 주요 공로조서 : 붙임

6. 수여효과

- 대구-광주 우호관계를 견고히 하여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에 기여
- 대구-광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 달빛동맹 교류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7. 수여 예정일 : '22. 5~6월 중

功 勞 調 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소속 및 직위
이용섭	1951.8.11.	남	한국	광주광역시장

□ 약 력

○ 출 생 : 전라남도 함평

○ 학 력

- 성균관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 미시간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 전남대 무역학과
- 학다리고등학교

○ 주요경력

- 2018 (현)광주광역시 시장
- 2008 ~ 2014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 2006 ~ 2008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
- 2006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 2005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 2003 ~ 2005 제14대 국세청 청장
- 2002 ~ 2003 제20대 관세청 청장
- 1995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부이사관
- 1973 행정고시 14회

○ 수상경력

-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 소비자연합단체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 대한민국 청조근정훈장

□ 주요공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대구-광주 우호관계의 증진과 상생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동서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그 주요공적은 다음과 같다.

○ 달빛동맹 협력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선도

- 동서화합과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성과를 달성함.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정부 초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대구-광주 양 시장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영호남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초석이 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에 공헌함.
- 대구-광주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이자 달빛동맹 공동협력과제로써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포럼 개최 등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방자치분권을 촉진하고 동맹의 연대를 공고히 함. 또한 대구-광주광역시장은 양 지자체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도출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대를 선도함.

○ 재난상황 공동대응으로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

- '20년 3월,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시의 코로나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연대

발표와 달빛의료지원단 대구 파견 등 범국가적 코로나19 대응 연대 협력을 이끈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구와의 우호 관계를 견고히 하여 시민사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함. 또한 대구시 환자들을 위한 음압 및 격리병실 제공으로 32명의 대구시민이 무사히 완치될 수 있었고 광주시의사회와 자원봉사자 다수가 의료 지원에 앞장섰으며 보건용 마스크 4만장을 비롯한 다양한 구호물품 전달을 통해 대구의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에 힘을 보탬. 특히 광주의 병상연대 발표를 기점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를 받아 치료에 나서는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역 경계를 넘어선 국가단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국민대통합에 기여하였고 이전까지 협력사업의 공동추진 등 이해가 맞닿은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달빛동맹이 양 지역 간 정서적 연대로 발돋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로 달빛동맹 시민공감대 확산에 공헌

- 경제산업, SOC 분야의 협력을 넘어 시민들이 더 쉽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 시민들의 상호 이해도와 친밀도를 제고하고 동서화합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여론 형성을 주도함. 양 시장의 2.28. 5.18. 민주운동 기념식 교차 참석은 대구-광주 시민의 역사적 민주정신을 고취시켰으며,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과 유치 서명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체육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응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등 달빛동맹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관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냄. 이 외에도 팔공산·무등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 대구-광주 달빛투어 교류를 통해 영호남 유대감 강화와 자원 봉사 민간교류를 통한 인적 정서적 화합을 도모함.

○ 달빛동맹 2기 시대 출범으로 장기적 우호·협력 관계 형성

- 양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달빛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동맹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달빛동맹 2기 시대를 열면서 대구-광주의 장기적 우호·협력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함.

위와 같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활동이 대구와 광주 양 지역의 우호 증진과 상생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추천하고자 함.